

■ 고사성어 ③



瓜田李下(과전이하) : 오이 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으로 의심받을 짓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말.

전국시대인 주 나라 열왕 6년(B.C. 370) 제 나라 위왕때의 일이다. 위왕이 즉위한 지 9년이나 되었지만 간신 주과호가 국정을 제멋대로 휘둘러 왔던 탓에 나라 꼴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웠다.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후궁 우희가 위왕에게 아뢰었다. "전하 주과호는 속이 검은 사람이오니 그를

내치시고 북곽 선생과 같은 어진 선비를 등용하시옵소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주과호는 우희와 북곽 선생은 전부터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우희를 모함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왕이 우희를 불러 직접 묻자 "전하, 신첩은 이제까지 한마음으로 전하를 모신 지 10년이 되었으나나



경북 영주생 검교공파 34세 H.P:010-5483-7511 -악력- 개인전4회,초대그룹전20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운영위원, 심사위원 역임 ·영남미술협회 회장 ·유강 서화연구원 원장

오늘날 불행히도 간신들의 모함에 빠졌나이다. 만약 신첩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오이 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듯이 남에게 의심받을 일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과 신첩이 옥에 갇혀 있는데도 누구 하나 변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신첩의 부덕한 점이옵니다." 우왕은 우희의 충심어린 호소를 듣고 이제까지의 악몽에서 깨어났다.



管鮑之交(관포지교) : 관중과 포숙아 사이와 같은 사귄이란 뜻으로 시제를 떠나 친구를 위하는 두터운 우정을 일컫는 말.

춘추시대 초엽, 제 나라에 관중과 포숙아라는 두 관리가 있었다. 이들은 죽마고우로 들도 없는 친구 사이였다. 관중이 공자 규의 측근으로 포숙아가 규의 이복 동생인 소백의 측근으로 있을 때 공자의 아버지 양공이 사촌동생 공손무지에게 시해되자 관중과 포숙아는 각각 공자와 함께 이웃 나라와 거나랠로 망명했다. 이듬해 공손무

지가 살해되자 두 공자는 군위를 다투어 귀국을 서둘렀고 관중과 포숙아는 본의 아니게 정적이 되었다. 관중은 한때 소백을 암살하려 했으나 그가 먼저 귀국하여 환공이라 일컫고 노나라에 공자 규의 처형과 아울러 관중의 암살을 요구했다. 환공이 암살된 관중을 죽이려 하자 포숙아는 이렇게 진언했다.

"전하, 제 한 나라만 다스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신으로도 충분할 것이옵니다. 하오나 천하의 패자가 되려면 관중을 기용하시옵소서" 도량이 넓고 식견이 높은 환공을 신뢰하는 포숙아의 진언을 받아들여 관중을 대부분 증용하고 정사를 맡겼다. 이윽고 재상이 된 관중은 과연 대정치가 다룬 수완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안다. 의식이 풍족해야 영욕을 안다고 한 관중의 유명한 정치철학이 말해 주듯, 그는 국민 경제의 안정에 일각한 덕분주의의 선정을 베풀어 마침내 환공으로 하여금 춘추의 첫 패자로 군림케 했다. 이같은 정치적인 성공은 환공의 관용과 관중의 재능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이긴 하지만 그 출발점은 역시 관중에 대한 포숙아의 변함없는 우정에 있었다.

안동전통음악 축제전경을 가다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축제 <2>

■ 권 두 현 (제안동축제관광조직위 사무처장)



다. 지역의 문화가 지속가능한 문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문화경영에 대한 고민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중이다. 유네스코 문화기후인 국제 '탈연맹'을 통해서 세계적인 교류 또한 발전시킬 계획이다. "문화유산은 소중한 것인데 학습으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감각, 감성, 삶 속에서 가치를 보증받는 논리, 세계관, 철학을 만들고 싶어요. 국가가 지방문화재보다 더 훌륭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느끼고 향유함으로써 그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지요." <끝>

<지난 호에 이어서> 그가 안동지역을 다니며 느낀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선비들의 문화가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그들의 철학이 인간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느끼도록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시작했다. "안동에서 문화 활동을 하면서 세 가지 방향을 염두에 두었어요. 첫 번째는 안동지역 문화를 잘 정리, 조사, 연구하는 학술적인 작업이고요, 두 번째는 안동문화의 건강성을 상징하는 문화유산들과 관련된 활동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문화유산이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만들어지기 위해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자는 것이었지요." 그는 늘 이론과 현장의 접점에서 있다. 그것이 전통과 오늘을 이어주는 길목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미래지향적인 문화,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문화를 만들어낼까 고민한다. 사람과 소통하는 전통 "문화를 가지고 산업이라는 도구로 탑재시키는 방식을 찾지 않으면 더 이상 문화는 현 사회에 기여하기 어려울 거예요. 대중화되지 않는 문화, 보편적인 삶에 기

여하지 않는 문화, 향유되지 않는 문화가 문화로서의 존재가치가 있는지는 회의론을 늘 가지고 있죠. 문화는 지금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지금 사람들에게 가치 속에 남아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의 문화활동 이력을 보면 현재 명예 가이드 제도 및 문화유산해설사의 근간이 된 시민명예관광가이드(한 문화재 한 지킴이)의 원류인 한 가족 한 문화재 가꾸기 운동, 고택속박체현, 고가음악회 등 실제적이고 의미있는 활동들이 가득하다. 몇 가지의 이야기만 들여보아도 그가 얼마나 전통문화를 대중들과 공유하고 싶어하는지 대단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게다가 오래전에 실시했던 기획안들이 오늘날 정책적으로 반영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된 모습이 눈앞에 있으니 그의 노력의 열매가 싹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것이 지자체의 책임이 다가 아닙니다. 국가는 기본적인 제도를 만들어 주고 사회구성원들이 합의를 해서 그 가치를 확보해 능동적으로 문화유산을 보존하려고 했을 때 보존은 물론,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의미로 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올해 가을에 열릴 '제16회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

■ 우강 권이역 전 장관 에세이

춤

2011년 6월 19일(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공연된 '춤'을 관람했다. '춤'은 우리나라의 전통춤을 말한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문화재청 후원으로 열린 이 공연은 1년에 한 차례만 공연하는데 금년(2011년)은 6월 19일 오후 5시 공연이 바로 그 한 차례이다. 공연을 관람하니 그 사연을 알게 되었다. 고령의 무용가들이 있고 또 무용가들이 지방에 흩어져 있는 까닭이다. 이번 공연에는 출연했지만 다음은 기약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분도 있으니 말이다. 이제까지 1년에 한 번씩 두 서너 번의 공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權公澤, 한양대 음대교수)가 의외더니(나의 장모님)도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는 저분들같이 동실 동실 춤을 추셨던 생각이 난다는 말을 듣고는 나도 모르게 옛 생각들이 나서 눈물을 흘렸다. 이 세상에 미녀가 많지만 나에게 있어 어머니·장모님·집사람이 3대 미인이다.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위대한 미인들이다. 과거에도 이들에 대한 나의 심정을 쓴 일이 있다. 춤은 약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출연자와 같은 고도로 발전된 춤을 출 수 있을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이지만 한국 사람들 중에는 흥이 나면 덩실덩실 자연스럽게 춤을 추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나는 비교적 여러 무대를 관람했지만 이번 무대에서 만큼 감동을 받은 경우는 드물다. 영화를 보다가 눈물을 흘린 적은 몇 번 있었지만 무용을 관람하다가 감동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우리나라 전통무용가 8명이 출연하는 무대였다. 춤에는 승무(僧舞), 한량무(閑良舞), 민살풀이춤, 도살풀이춤, 소고(小鼓)춤, 교방(敎坊)굿거리춤, 북춤 등이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다. 나는 그동안 간간히 전통춤을 보아왔지만 본격적인 춤을 관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들 중 내가 과거에 관람했던 춤은 승무와 북춤뿐이다.

이번 공연에서 나는 우리 전통춤의 진수를 맛보았다. 춤추는 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여찌하여 그렇게 우아하게 느껴지는가. 나로서는 여러 가지로 배우게 되는 것이 많았다. 동화는 가끔 나에게 '자기개발'의 기회를 마련해준다. 기록한 일이다. 사실 동화 때문에 나는 모르고 있었던 세상을 새삼스럽게 알게 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 이번 공연에 동원되었던 국악연주단도 명인들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장고, 아쟁, 대금, 피리, 해금, 북으로 성립된 국악연주단은 '림 시나위'라고 불렀는데 명 주악대였다.

이번 공연에서 감동적이었던 것은 80세의 조갑녀(趙甲女) 할머니와 84세의 장금도(張今桃) 할머니의 춤이었다. 두 사람이 다 민살풀이춤을 추었는데 참으로 놀라웠다. 조갑녀 할머니는 1928년생으로서 나와 동갑이다. 남원(南原)에는 '춤은 조갑녀'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그는 유명한 무용수이다.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악(奏樂)에 맞춘 그의 자연스러운 손과 발동작의 하나하나가 정말 놀라웠다. 84세의 나이에 어찌 저처럼 훌륭한 춤을 출 수 있을까 하고 그저 감탄하고 또 감탄했다. 84세의 장금도 할머니는 1928년생이고 군산출신의 예기(藝妓)였다. 두 할머니 모두 많은 사연의 소유자이며 한 때는 무용생활에서 떠나기도 했다. '서있지만 해도 춤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두 할머니의 춤을 보니 이 말이 참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느껴졌다. 옆에 앉아 있던 동희(셋째 딸의 이명, 본명

權公澤, 한양대 음대교수)가 의외더니(나의 장모님)도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는 저분들같이 동실 동실 춤을 추셨던 생각이 난다는 말을 듣고는 나도 모르게 옛 생각들이 나서 눈물을 흘렸다. 이 세상에 미녀가 많지만 나에게 있어 어머니·장모님·집사람이 3대 미인이다.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위대한 미인들이다. 과거에도 이들에 대한 나의 심정을 쓴 일이 있다. 춤은 약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출연자와 같은 고도로 발전된 춤을 출 수 있을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이지만 한국 사람들 중에는 흥이 나면 덩실덩실 자연스럽게 춤을 추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춤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었다. 절묘한 화술에 많은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다. 전통춤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본다.

승무: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독무(獨舞)로, 한국무용 특유의 정중동(靜中動)·동중정(動中靜)의 정수가 잘 표현되고 있으며 예술성이 높다. 승무의 연원에는 두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불교의식 무용설이고 다른 하나는 황진이 가 지족선사(知足禪師)를 유혹하려고 춘 춤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다. 승무는 지역마다 조금씩 특성을 달리하고 있다. 1969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되었다.

한량무: 경남 중요문화재 제3호이다. '한량'은 벼슬에 오르지 못한 양반을 일컫는 말인데 풍류를 알고 의기가 있는 사나이를 말하기도 한다. 한량과 별감(別監: 조선시대에 조사·감독 등의 일로 지방으로 보내던 임시 벼슬)이 기생을 데리고 즐겁게 노는 자리에서 놀러가 나타나서 멋진 춤으로 기생의 환심을 사니 기생은 한량과 별감을 버리고 승려에게로 갔다고 한다.

살풀이춤: 정해진 형식이 없고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춤이다. 모든 춤을 섭렵한 후에야 출 수 있는 춤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그 해의 나쁜 기운을 푸는 춤을 추는 습관이 있었다. 이것을 '살풀이춤'이라고 하고 민살풀이춤, '도살풀이춤', '허튼춤'으로 나누기도 한다.

소고춤: 농악에 편성되는 소고장자들이 추는 춤을 말한다. 전립(戰笠) 꼭지에 흰 새털이나 종이오리를 달고 돌리는 춤이다.

교방굿거리춤: 고려·조선시대 전주교방청(普州敎坊廳)에 의해 전해오던 춤이며 1997년에 경남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되었다. 무속금지령으로 무당들이 교방으로 유입되면서 굿거리춤(무당이 굿할 때 치는 9박자의 장단에 맞춰 추는 춤)이 되었다고 한다.

북춤: 전통무용 중 가장 대중적인 춤이다. 주로 농악의 북채비가 추는 춤이다. 북채 2개를 양 손에 들고 북을 치면서 추는 쌍부채춤과 북채 하나를 들고 북을 치는 외부채춤이 있다.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가장 잘 발달했다고 한다. 경상도 지방의 북춤은 남성적이고 전라도 지방의 북춤은 여성적이라는 평도 있다.

正獻公 鷄林府院大君 王煦先祖秋享祭 案内

民統線대(長湍) 正獻公의 秋享祭와 密直公 王重貴(十五世), 府尹公 諱肅(十六世), 執義公 諱嚴(十六世), 左尹公 諱循(十七世), 花山府院君 諱復(十七世), 直長公 諱得(十七世), 知敦寧府事公 諱格(十八世), 禮參公 諱至(十八世), 主簿公 諱永聃(十九世), 선조님의 추향제를 하기와 같이 봉행하오니 많은 참례 바랍니다.

- △일 시: 2013년 10월13일(음 9월9일) 일요일 오전 10시30분
△교 통 편: 자가용 등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은 전진교 광장에 오전 9시30분까지 도착요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로타리에서 오전 7시30분 전세버스가 출발예정(서울 참례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접수마감: 2013년 9월 30일
△회 비: 1만원(필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참례자는 필히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세버스를 이용코져 하시는 종원은 접수마감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 락 처: 회장 권준식 (02)932-6267, 010-7517-6267 사무처장 권석원 011-289-3856

安東權氏 正獻公派宗中 會長 權 俊 植

慶 제26회 청·장년회 전국 문화축제 개최 祝

자랑스러운 권문의 번영과 화합 그리고 발전을 위한 전국 청·장년들의 문화축제가 대전광역시에서 개최하오니 참가하는 시·군은 12월 31까지 참가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14년 4월 27일 10:00-16:00
·장 소: 뿌리공원 대광장 예정
·연락처: 청장년회장 권웅기
·부회장 권준순 권용수 권용재
·준비위원장 권선상 사무국장 권영인
·접수처: 대전총친회 042-522-8751

제30회 한국서화 예술대전 윤태희서예가 특선 당선

왕소 윤태희서예가(권태강검교공파종회장 부인)가 지난 7월 3-5일 서울시립경희궁미술관에서 열린 제30회 한국서화작가협회대전에서 '丹光出洞如明月(단광출동여명월)' (붉은 빛이 고을에 나니 밝은 달과 같고) '玉氣上天爲白雲(옥기상천위자운)' (옥기운이 하늘에 오르니 흰 구름이 된다)는 추사체로 작품을 출품해, 특선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지난 4월 (사)한국서예미술진흥협회로부터 서예초대작가로 인정받아 크게 활동하고 있다. <권오복 편집위원>

[권문의 노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www.andongkwon.org

권문의 노래를 안동권씨대중원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올려 놓았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안동권씨대중원 또는 안동권씨중앙총친회]

음악: MP3파일 가사 및 악보: 아래한글